

인터뷰 석굴암 사랑 30년 김효경 박사

국보 제24호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해진 가운데 30년간 석굴암 석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 보고서를 매일 받아보며 점검하고 있는 문화재전문가가 있어 화제다.

30년 전에 맡았던 석굴암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챙기고 있는 서울공대 명예교수이며 대한석비공사협회 상임자문인 김효경박사(72).

그가 65년 석굴암과 인연



습도·온도보고서 매일 점검 완벽보존에 '열과 성'

올 땀은 것은 일제가 석굴을 보수하며 콘크리트를 씌운 뒤부터 생기기 시작한 습기와 이끼를 없애는 일이었다. 김박사는 1년동안 습도와 온도 변화를 조사, 석굴 근처에 외기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계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공사 이후 2년여 문화재복구 지도위원으로 위

촉돼 기계의 상태를 점검했고, 그로써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김박사의 문화재 사랑이다.

김박사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국보를 손질했는데, 죽을 때까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자들의 사찰문화재 사랑을 당부했다. (재)

불조삼경 묘법연화경 집주금강경 등 불교문화재 4건 보물로 지정

문화부는 지난 19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멸행록요병입사기(法集滅行錄要病入記)>를 보물 제1222호, <집주(集註)금강반야바라밀경(註金剛般若波羅蜜經)>을 보물 제1223호, <불조삼경(佛祖三經)>을 보물 제1224호, <묘법연화경 권제7>을 보물 제1225호로 지정하는 등 중요문화재 7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방지사설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보 15점중 △국보 44호 장흥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국보 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 △국보 67호 구례 화엄사 각각전과 국보 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보물 158호 보조선사 창성비 등 6건이 보물 7점을 지정하는 등 중요문화재 7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림사석탑등 훼손 전남 문화재 조사결과

지난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2백24점과 도지정문화재 4백92점 등 모두 7백16점의 문화재 중 1백71점이 보물, 국보, 보

피산 삼방리 3층석탑 충북 지방문화재 지정

충북 피산군 불정면 삼방리 탑마을 3층석탑이 최근 충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됐다.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3.5m의 이 석탑에는 등면에 약사여래, 서면 아미타여래, 남면 대일여래, 북면에 석가여래상이 조성돼 있어 사방불의 의례를 따르고 있다.

충북 증평출장소는 최근 도 유형문화재 제75호 광덕사 석불입상의 균열·이탈된 불두(佛頭)를 접착하는 등 보존공사에 착공했다.

전남 문화재 조사결과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멸행록요병입사기(法集滅行錄要病入記)>를 보물 제1222호, <집주(集註)금강반야바라밀경(註金剛般若波羅蜜經)>을 보물 제1223호, <불조삼경(佛祖三經)>을 보물 제1224호, <묘법연화경 권제7>을 보물 제1225호로 지정하는 등 중요문화재 7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효, 한국 불교에 살아 숨쉬는 고승들과 재가 불자들의 효행, 효 윤리의 현대적 의미를 평이한 문체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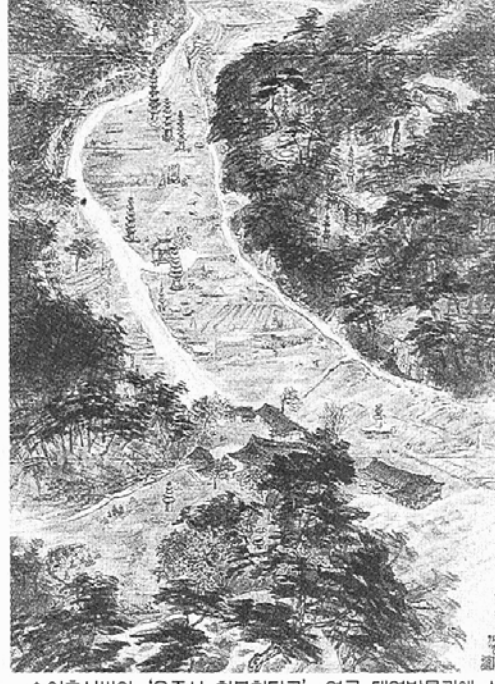
- 불교의 인간관을 수록
- 왜 부처님은 출가후에도 효를 했는가?
- 불효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
- 출가후 고승들의 효행
-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를 말함

신국판/240쪽/전원 컬러(사진 39매 수록) / 값 7,000원

운주사 천불천탑골 창작소재 '0순위'

전남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골이 중요한 창작의 소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불교를 주제로 한 작업들이 천불천탑골을 작품의 대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미완의 천불천탑골, 억눌린 민중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애절한 염원을 담고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불천탑골은 그 자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회구하는 작가들에게 더



이호신씨의 '운주사 천불천탑골'. 영국 대영박물관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화가·시인·소설가·사진 작가들 융화세계 완성발원 작품 잇달아

작품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경을 수록담체로 그려 영국 대영박물관이 영구 전시키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대전 홍인 갤러리에서 열리는 '마을-자 리매김전'에서도 운주사 불상과 탑을 비구상적으로 표현한 김용씨의 「운주사소견」을 만날 수 있다. 기존의 화가들이 운주사의 불상과 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데 비해 김용씨는 비구상적 기법으로 해석하고 있어 흥미롭다.

문학가들에게도 운주사는 중요한 창작의 무대로 사용되고 있다. 황석영씨의 대하소설 <장길산>의 후반부에 융화세계를 꿈꾸는 천민들의 꿈의 땅으로 천불천탑골이 등장한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전주 신희교 교사이며 시인인 진동규씨의 경우 올 연초 천불천탑골을 시적으로 구성한 <일어서는 돌>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시극은 백제 난민들이 융화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천개의 탑과 불상을 조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호신씨의 천불천탑골 1,2 진동규씨는 "운주사 천불천

탑골은 모든 예술인들에게 열려 있는 창작의 교과서"라며 앞으로 문학인들에게도 창작의 욕을 솟게하는 장소로 운주사가 더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작가들도 운주사행 출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불상과 탑의 조형미가 독특해 사진 작가들에게 매우 호감을 갖게 한다"는 유남해씨는 대원사가 간행한 <운주사>에 천불천탑골 상세히 소개했다. 불교계에 잘 알려진 관조스님과 안장현, 조문호씨 등도 운주사를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연태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돔 철거 축하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 공연

내달 15일...목정배교수시 박범훈씨 작곡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구조선총독부 건물) 대극장의 돔 철거에 앞서 진행될 대형 축하무대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가 광화문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동국대 목정배교수의 시에 국립극악관현악단 단장 박범훈씨가 곡을 붙인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는 웅혼한 민족의 기상과 불교의 자비,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꾸며진다. 약 9분간 진행될 이 공연은 3백명의 합창단과 1백50명의 무용단 80명의 국악관현악단이 동원되는 대형무대.

웅장한 관현악과 합창단이 '아, 천둥소리'를 연주하는 가운데 무용단이 등장해 일제 잔재를 해체하는 뜻을 기리고 나라의 평화와 인류의 자비, 평등을 염원하는 무용을 펼치게 된다.

'DMZ-한의 소리'로 인간정신 묘사

박찬갑씨, 9월 덴마크 아리우스 축제 참가

리우스 국제 페스티벌에 한국대표작가로 참여한다.

박씨는 이 페스티벌에 「DMZ-한의 소리」라는 작품을 내놓게 된다. 이 작품은 38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종을 하늘에 매달아 땅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소리를 표현한다.

불심시심 <25>

배고프면 밥 먹다

百千經卷如標指 (백천경권여표지) 백천의 경권 손가락 같아서
因指當觀月在天 (인지당관월재천) 손가락따라 하늘의 달을 보네
月落指忘無一事 (월락지망무일사) 달지고 손가락 잊어 할 일도 없으니
航來奕奕困來眠 (기래익익곤래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네

뒷 시는 서산대사의 제자 이기도 했던 소요대사(逍遙太能)의 시다. 소요대사가 연곡사(燕谷寺)의 향각에서 지은 시이나 제목과는 관계 없이 선남으로서의 수행방편을 말한 전형적인 선기적 시이다.

백천으로 해아릴 수 있는 온갖 경험은 진리로 나아가는 길잡이이며,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아랄로 가리킴으로 비유되는 지표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이 있는 곳까지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을 것과 같다. 손가락은 달까지 시선을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이지 손가락이 달이 될 수 없듯이 손가락이 달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범상함을 형식 반복되기에 진리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처럼 진리의 실상은 일상의 평범함이다. 여기에는 성인이자, 범부다 하는 삶의 일상이지만, 범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박찬갑씨

최영문씨 '...사람살이' 개인전

물질풍요·정신빈곤 표현...8월1일까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이라는 현실적 대립의 문제를 회화와 조형의 결합체로 풀어 내은 작가 최영문씨의 작품전이 26일부터 8월1일까지 관촌동 갤러리 터(723-1295)에서 열린다.

'아들에게 남긴 산골, 사람살이'를 주제로 한 최씨의 전시회에는 현대인의 삶의 언저리에 남아 있는 근본적인 고통과 고항회기 본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최씨는 회화작품 속에 조형적 요소를 결합해 입체적인 주제표출을 시도하고 있어 화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영문씨는 현재 전북 장수의 장수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영문작 '무상'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용주사 사지(寺誌)

사찰 문화의 결정요, 신행의 요람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불심으로 승화되어 이룩된 용주사. 오늘날까지 '효의 근본사찰'로 인식되고 있음도 정조의 정신이 사찰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 총 정권 배경의 한 도막)

-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엮은 최초의 사지
- 조선왕조 사찰 창건의 역사가 담긴 사지

변형판(18쪽)/248쪽/전원 컬러(사진 168매 수록) / 값 10,000원

전통사찰총서

사찰 속에 깃든 한민족 문화의 뿌리 찾기

방대한 자료와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통 사지

전통사찰총서 1,2·강원도 I, II

강릉시·속초시의 16개 시군의 유물·유적 총람 / 월정사·신홍시'의 55개 전통사찰 및 절터의 창건 설화, 문화재, 대표적 수행자, 성보의 불교 문화사적, 신앙적 의미 해설 / 문화부지정, 강원도 소재 전통 사찰 목록 / 탑·부도 석비·불교 건축물의 부분 명칭

강원도 I → 268쪽/신국판(사진 262매 수록) / 책값 : 7,500원
강원도 II → 252쪽/신국판(사진 267매 수록) / 책값 : 7,500원

불교 문화 남·북한 민족 동질성의 공통분모

분단 이후 최초로 시도된 '북한사찰연구'

I. 총설
북한의 승려·신도 단체,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본 '북한 불교의 현재'

II.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현존 사찰로 알려진 60여 개 사찰의 역사적 고찰

III. 북한의 주요 사찰
한국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12개 사찰의, 역사적 인물, 귀중한 문화재의 모든 것

IV. 북한의 불교 문화재
북한에서 지정된 58점의 불교 문화재의 종교적, 예술적 의미

V. 북한의 사찰 재산
분단 이전 사찰 소유의 재산 현황(과거 31분산의 북한 지역 내 사찰 재산 목록 : 289개 사찰, 82,000정보)

VI. 북한의 사찰 목록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793개 사찰과 문헌 정리(위치·창건·주요인물·문화재·도표화)

680쪽/4×6배판(사진 206매 수록)/값 30,000원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효, 한국 불교에 살아 숨쉬는 고승들과 재가 불자들의 효행, 효 윤리의 현대적 의미를 평이한 문체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 불교의 인간관을 수록
- 왜 부처님은 출가후에도 효를 했는가?
- 불효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
- 출가후 고승들의 효행
-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를 말함

신국판/240쪽/전원 컬러(사진 39매 수록) / 값 7,000원

전통사찰총서 3·경기도 I

안양시의 9개 시군의 문화적 특성 개관 / 용주사 의 45사찰·절터의 모든 것 / 불교문화재 목록 / 절터 목록 / 불교 금석문

362쪽/신국판(사진 217매 수록) / 책값 : 10,000원

전통사찰총서 4·서울

서울의 역사·문화 개관 / 각 구의 문화적 특성 / 54개 전통 사찰의 모든 것을 구별로 나누어 정리 / 서울 소재 불교문화재 목록 / 서울 전통 사찰 주소록

472쪽/신국판(사진 297매 수록)/책값 10,000원

전통사찰총서 5·경기도 II

인천시·남양주시 의 14개 시·군의 불교문화 소재 봉선사와 55개 사찰 및 절터의 사찰문화 총람 8월말 발간 예정입니다.

北韓寺刹研究

분단 이후 최초로 시도된 '북한사찰연구'

I. 총설
북한의 승려·신도 단체,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본 '북한 불교의 현재'

II.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현존 사찰로 알려진 60여 개 사찰의 역사적 고찰

III. 북한의 주요 사찰
한국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12개 사찰의, 역사적 인물, 귀중한 문화재의 모든 것

IV. 북한의 불교 문화재
북한에서 지정된 58점의 불교 문화재의 종교적, 예술적 의미

V. 북한의 사찰 재산
분단 이전 사찰 소유의 재산 현황(과거 31분산의 북한 지역 내 사찰 재산 목록 : 289개 사찰, 82,000정보)

VI. 북한의 사찰 목록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793개 사찰과 문헌 정리(위치·창건·주요인물·문화재·도표화)

680쪽/4×6배판(사진 206매 수록)/값 30,000원